

예상대로, 김경문·조범현 전 감독 있었네

후보 3명+예비후보 2명, 순위 정해 확정
“비공개지만 국제대회 우승 경험 중요해”
김위원장, 김경문·조범현 유력후보 시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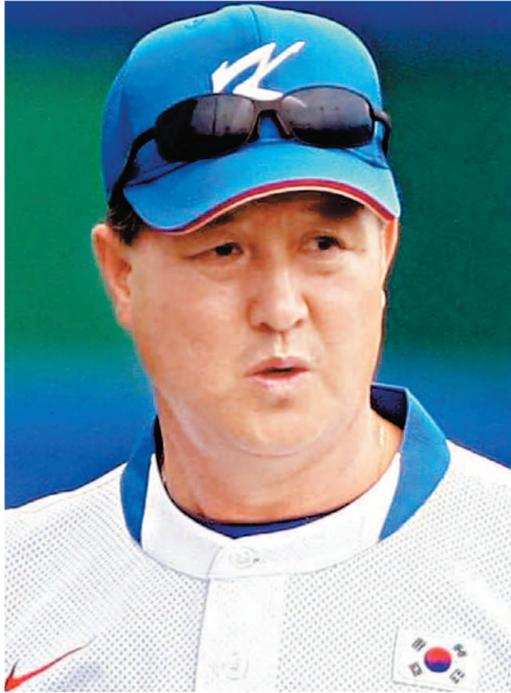
예상대로 김경문, 조범현 전 감독이 야구국가대표팀 전임 사령탑 후보에 올랐다.

KBO 국가대표 기술위원회는 23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대표팀 감독후보를 확정했다. 김시진 위원장, 최원호·이종열 SBS 스포츠 해설위원, 박재홍 MBC스포츠플러스 해설위원, 이승엽 KBO 홍보대사, 마해영 성남 블루팬더스 감독, 김진섭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KBSA) 부회장 등 7명으로 구성된 기술위원회는 이날 3명의 감독후보와 2명의 예비후보를 확정했다. 주목할 부분은 기술위원회가 감독 후보 확정 뿐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 정운찬 KBO 총재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은 “기술위원회 내부적으로 1~3순위를 정했다. 내가 직접 (1순위 감독후보에게) 만남을 청해 수락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KBO 총재가 최종 후보와 순위에 다른 의견을 밝힐 경우 추가 논의가 이뤄질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 정 총재는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한 논의를 통해 새 감독을 영입하겠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후보 3명과 예비 후보 2명의 이름을 공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회의 직후 취재진이 유력 후보로 꼽히고 있는 조범현, 김경문 전 감독에 대해 질문하자 “언론들이 우리보다 더 빠르게 앞서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사실상 시인했다. 이어 “국제대회 우승경험은 높이 평가 될 부분이다”고 말했다.

김경문 감독은 2008베이징올림픽, 조범현 감독은 2010광저우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이끌었다. 조 감독은 대표팀이 4강에 오른 200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김시진 KBO 국가대표 기술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야구회관에서 기술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대표팀 전임감독 후보를 확정했다. 예상대로 1~3순위가 매겨진 후보 3명 가운데 김경문(왼쪽) 전 감독과 조범현(오른쪽) 전 감독이 포함됐다.



코치 경험도 갖고 있다. 두 후보 모두 국제대회 경험과 리그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아 전임감독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가 따른다. 이들 외에 1명의 후보, 2명의 예비 후보가 있지만 최종 제2대 국가대표 전임감독은 두 명 중 한명이 맡을 가능성이 높다.

이날 기술위원들은 큰 이견 없이 대표팀 감독후보 선정을 마무리 했다. 새 전임감독의 임무는 막중하다. 먼저 2020도쿄올림픽 본선 진출권을 확보해야 한다. 11월 열리는 국제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에서 쿠바 등 중남미 강호들과 경쟁해 조별 예선을 통과해야 아시아-오세아니아 그룹에 1장이 걸린 올림픽 출전권 경쟁을 할 수 있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리베라, 사상 첫 만장일치 명예의 전당

뉴욕 양키스의 전설적 마무리투수 마리아노 리베라(50)가 23일(한국시간) 공개된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의 2019년 명예의 전당 투표 결과 사상 최초로 득표율 100%(투표자 425명), 만장일치의 영예를 안았다. 1936년 명예의 전당이 문을 연 뒤로 최초다. 종전 최고기록은 2016년 켄 그리피 주니어의 99.3%(440표 중 437표)다. 2017년 11월 비행기사고로 사망한 투수로 이 할러데이, 리베라의 동료였던 투수 마이크 무시나(51), 메이저리그 역대 최고의 지명타자로 평가받는 에드가 마르티네스(56)도 입성 기준인 득표율 75%를 넘어 쿠퍼스타운행에 성공했다.

안치홍 “FA 생각 1도 없다…전경기 출장 목표”

개인훈련 위해 오키나와 조기출국

KIA 타이거즈 안치홍(29)이 팀 전지훈련지인 일본 오키나와로 조기출국했다. 이범호, 김주찬, 나지완 등 팀 동료들과 함께 해외 개인훈련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이른 출국이다. 새 시즌을 위한 안치홍의 준비는 누구보다 빨랐다. 개인훈련을 아예 팀 훈련지인 오키나와에서 시작해 이전 보다 빨리 몸을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안치홍은 “따뜻한 곳에서 하루 빨리 몸을 만들고 싶었다. 2월 첫 날 열리는 팀 청백전이 이미 공지된 지 오래다. 생각보다 여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2017년 통합우승을 차지한 KIA는 2018년 순위가 5위까지 추락했다. 재도약을 간절히 바라는 것은 구단이나 선수들 모두 똑같다. 이제는 팀의 핵심타자로 성장한 안치홍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전체적으로 아쉬운 한 해였다. 개인적으로 좋은 기록을 올렸지만, 부상으로 출전 못한 경우가 마음에 걸렸다. 나중에 생각이 많이 나더라. 올해는 꼭 부상 없이 한 시즌을 치르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한 몸으로 전 경기(144G)에 출전하는 것을 올해 목표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시즌이 종료된 뒤 언젠가 되는 프리에이전트(FA) 권리, 프로 인생에 단 한 번도 있을까 말까한 절호의 기회이기에 이를 맞이하는 선수들의 마음가짐은 사뭇 남다르다. ‘FA로이드’라는 말이 탄생한 배경이기도 하다.



KIA 타이거즈 안치홍이 본격적인 시즌 준비를 위해 일본 오키나와에서 출국해 구슬땀을 흘린다. 시즌 뒤 찾아오는 프리에이전트(FA) 기회를 생각하기 보다 ‘전 경기 출장’이라는 올 시즌 목표에 더 집중하기로 했다.

그러나 안치홍의 마음에는 아직까지 ‘FA’라는 단어가 없다. 생각 할 겨를조차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관련 질문이 나오자 “숫자로 말하자면 정말 ‘1도 없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다. 스프링캠프도 시작을 안 해 솔직히 체감이 잘 안 된다”고 말했다.

욕심을 내는 부분은 정작 다른 것이었다. 타격에 있어 “타점은 올해도 꼭 많이 올리고 싶다. 어느 타순에 있든 누상에 있는 주자들을 최대한 돕고 볼러들이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운찬 기자 award@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오래 살며 길이 복을 누리다

백화수복

우리쌀로 빚은 우리제례주

75년 전통 대한민국 대표청주 백화수복

경고: 저산소음은 배종종,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